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  
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장 소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의 건

상정된 안건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의 건 ..... 1

(13시20분 개회)

○의정팀장 안녕하세요? 의정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2년 제1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회 진행순서는 참석자 소개, 안건 상정, 제안설명, 안건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00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00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후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중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국외출장을 다루는 위원회가 사실은 의회 의원들께서 외국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동안 관련해서 우리 순

천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의회나 군의 회에서 잡음이 났던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랄까요, 하여간 좀 조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위원회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회의자료가 미리 준비가 되면 조금 더 일찍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와서 회의도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3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까, 어느 안건이든?

○의정팀장 예.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다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가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아울러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 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 국외출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호 안

건으로 제출된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최미희 위원, 신정란 위원은 안전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회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의 건

(14시24분)

○위원장 심사안전 제1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제1회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안은 1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 건입니다.

계획서의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출장자의 적격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지역현안 해결과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등 목적에 맞는 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례연수의 건의 공무국외출장 대표자 이영란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의원입니다.

제안서를 제가 브리핑하기 전에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탐방을 통해서 정책을 다소 수립하는 연구자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한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2019년 여름 다녀왔던 몇몇 코스가 있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실질적인 경비 산출과 이동수단 그런 관건만 의뢰를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무출장계획서를 제출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심사번호 제1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전 서류 1페이지입니다. 대상자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14명과 상임위 직원 2명 총 16명으로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6박 9일의 일정으로 덴마크, 스웨덴을 방문하는 계획입니다.

연수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한 도시문화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생소한 북유럽의 생태적인 도시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분석이 필요한 자원 재활용,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생태문화 정책, 도시공학과 기술 등을 우리 시의 미래 어젠다로 설정,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문영역과 경험을 지닌 여러 의원들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단순한 결과물 제출이 아닌 탐방결과를 시민, 관련단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구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코펜하겐, 미들콘트 해상풍력단지 등 친환경 선진사례 지역과 시청사 및 문화시설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인천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하여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2일차에는 덴마크 코펜하겐 8Tallet, 미들콘트 해상풍력단지, 코펜하겐, 하버바스, 돔오브비전, 외레스타드를 방문하여 친환경 주택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3일차에는 코펜하겐의 덴마크 시청사와 왕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시청사 및 도서관 내 선진시설현장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4일차에는 코펜하겐에서 스웨덴 말뫼로 이동, 릴라광장, 말뫼콘서트홀을 방문하여 시민광장 및 문화시설 조성 현장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5일차에는 말뫼 미디어 에볼루션, Bo지구, 말뫼 현대미술관을 방문하여 쓰레기매립지 등 혐오시설의 친환경시설 전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6일차에는 말뫼에서 스웨덴 예테보리로 이동, 슬로츠코겐 공원, 예테보리 미술관을 방문하여 시민광장 및 문화시설 조성 현장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7일차에는 예테보리 국립과학관 유니버세움,

테크닉가탄 시내버스 정류장, 세계문화박물관을 방문하여 선진 과학기술 및 친환경 전기버스 정류장, 박물관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려 합니다.

8일차와 9일차에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총 경비는 6700만 원으로 1인당 순천시 320만 원, 자부담 104만 2310원으로 총 4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란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안건 사례 연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4 안 가신 의원님들은 사유가 있어서 안 가시는 건가요? 빠진 분들은.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본인이 의사표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배경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의회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1인당 320만 원씩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대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액 반납을 했고 상반기 때 2차례 다녀왔습니다, 지난 8대 때 예로.

○위원장 예, 위원님.

○위원 3 위원님들께서 연수를 통해서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녀오셨지만 다녀오실 때마다 보면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꼭 이번 연수를 통해서도 보고서 제출 같은 걸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 사업인데 그와 관련해서 꼭 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부터 제가 의원에 대한 자세랄까, 의원으로서 본분을 굉장히 저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 건도 단순히 외유형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지금은 현장에 안 가더라도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 수집할 수 있지만 직접 우리가 가서 보고 그거를 고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안서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다녀오면 보고서뿐 아니라 저희가 우리 순천시에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왔다고 했죠, 몇 군데를. 다녀와서 제가 시 지속위 같은 데 참석했을 때 계속 이곳을 가보라고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들끼리도 어떤 의안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한 차원 높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 5 위원장님, 제가 말씀...

○위원장 예, 위원님.

○위원 5 일정이 지금 11월 7일, 15일이면 정례회 기간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례회 기간은 언제죠?

○의정팀장 그 이후에, 다녀오신 이후입니다.

○위원 5 다녀오신 이후에 진행되는군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25일입니다.

○위원 5 제가 이래서 이 위원회 참석이 되게 곤혹스러운 건데 되게 제목을 멋지게 다셨어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RE100은 기업 간의 협약이거든요. 기업 간의 협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어떤 기반과 시설 내용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또는 이 RE100에 가입할 만한 지역 내의 어떤 해외수출이나 공산품들이 많은 기업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촉진하고 지원할 거냐 이런 정책들이 RE100이라고 하는 현장 방문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RE100의 시작은 최종한테 영국입니다. 영국이어서 그걸 주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게 아니라 국가나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정부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타당성에 맞춰서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있

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탄소를 제로화할 거냐, 일단 거기에 가입하자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뒤늦게 삼성전자가 가입을 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사례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현장과 국외연수 출장과 관련된 목적이 부합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첫 번째, 그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류 심의자료를 주면 심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수일정과 관련해서 일정표, 제가 이 일정표를 볼게요.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내용, 접촉 예정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쨌든 순천시의회라고 하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 공무출장을 가는 거잖아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5 그러면 이미 누구와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가 절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코디네이터를 누구랑 할 것인지, 현지 코디네이터는 누구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수일정을 제출할 때 여행사하고 함께 하고 있다면 행사가 어떻게 꼼꼼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지가 포함되어야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예 산내역 산정하고 간략한 연수일정표를 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는 건 저희한테 거수기 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여주신 주요 방문지 내용을 봐 보십시오. 과연 이게 여러분들께서 방문하려고 하는 국외공무연수와 결맞은 장소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물론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개인이 아니고, 또 조례를 결정하고, 순천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위적 감사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일정 중에 그래도 이 목적에 부합하는 곳을 가고 있느냐고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에 일정 부분 친환경 재료를 썼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공간, 기관이 대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영란 의원님께서 먼저 가 보셨던 지역이 도대체 우리 시 정책과 또는 우리 시의회가 진행해야 되는 어떤 정책과 부합해서

가보자고 하시는 것인지, 당면해서 봅시다. 폐기물처리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배출, 운반, 그다음에 처리, 처분 단계에 있는 건데 처리시설이나 처분 단계에서 입지조건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 낼 거냐는 거잖아요. 방식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령 주민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던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또는 처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주민 주도했던 것들이 행정이 주민을 설득했다거나, 아니면 주민이 넘비시설로 받아들이는 폐기물시설을 정부가 요청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치했다거나 이런 사례로 들어가 봐야 실질적으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3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첫째, 아까 여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5 먼저 RE100이 어떻게 현장 내에서 우리 지역 시청 정책 내에서 진행될 수 있겠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북유럽을 여행해서 저도 여행하면 그냥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위원 5 아니, 그러니까 RE100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시라는 뜻이죠.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RE100요?

○위원 5 이 정책이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그죠.

○위원 5 예, 첫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두 번째는, 제가 너무 길게, 두 번째는 관련된 관계기관이 누구이고 코디네이터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서류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첫째,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지만 그 여행사하고 전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계약을 저희들이 다 해놓고 나서 심의를 하면 아까같이 거수기 역할 그걸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테일한 면에는 아직 누구를 결정해 놓고까지는 진행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가 주문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여행사에다가 요구한 게 우리는 가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쪽 현지의 학예사들이랄지 전문가들을 해다오라고 일단 주문사항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RE100이 영국서 그거를 주최를 하고 주축 국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시민이 저희가 생활정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생활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 건가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자는 의미가 더 크죠. 우리가 거창한, 아까 대표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큰 어젠다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순천시에 발표한 사례로 보면...

**○위원 5** 아니, 위원장님, 제가 기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신 연수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요. 그 RE100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가 그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부터 실제 북유럽 선진국에서 실생활에 모든 게 녹아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생활에 녹아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 계획을 저는, 여러 가지 계획서 들어왔는데 이 계획서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로 저희가 덴마크를 갔을 때 길 거리에 노숙자가 페트병을 구걸하는 걸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왜냐? 그 사람들은 동전, 달러를 주라는 게 아니었고 페트병이었습니다. 그 페트병을 제가 마트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소각을 시켜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하고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짧은 언어로 물었을 때 그분이 굉장히 그 노숙자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걸 갖고 자기네들은 자기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

또 그리고 미술관을 갔을 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제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갔는데 저도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산정책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 이게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구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해외여행의 맹점을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염려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회만큼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지금 우리 현안이 처리장 시민들 갈등을 중재를 해서 그 현안을 받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우리가 폐기물 이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니까? 혐오시설로 기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부터도 이런 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탄소중립에 자신들의 인식도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염려하신 거 구호가 거창하지 않느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듣고 보고 체감한 만큼, 지식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것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정활동 중에 예산이 서기까지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걸 질문하신 유권자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 염려가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연수를 잘 계획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5** 예, 제가 너무 세게 질문을 해버렸군요. 미안합니다. 단 한 번도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연수를 할 거라고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만큼 순천시의회가 그렇게 수준 낮은 것도 아니고 전남 동부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지방자치에서의 의정활동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원 출신이기도 해서 조금 질문 과정에 언짢으신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 중에도 있으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군데에서부터 정보를 취하고, 또 말씀 중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 연수와 관련된 제안서들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를 받았으면 그 받은 자료와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뭔가 심의를 하는데 굳이 목적이 뭐냐 이래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아, 이런 곳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2쪽 한번 봐보십시오. 2쪽을 봐보시면 일정상 주요 업무내용을 봐보세요. 친환경 주택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벤치마킹하고요, 그다음에 현장방문합니다. 문화공연 관람하시고 문화시설 조성한 현장방문하세요. 그다음에 혐오시설을 친환경시설로 전환 배치한 사례 또한 벤치마킹하시죠. 문화시설 조성 현장 방문하시고 이런 것들의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어디 자료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례연수 이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접촉 예정인물, 또는 누가 어떻게 사례를 발표하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개인이 연수가면 이런 관련된 것들을 컨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대표기관이 움직이는 거고, 보니까 위원장님만 두 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항이시고, 또 우리 부의장님도 참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의 관계문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여행자들처럼 방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좀 더 심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5 이건 원인제공은 이 공무국외연수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공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이 상황에서 심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심사 자체가 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건데 달랑 작은 서류 가지고 심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역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현장을 꼭 가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의원을 해보셨지만 여행사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다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사례연구를 많이 하신 분한테 조언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저희들 이동거리가 짧습니다. 1시간에서 3시간 30분만 이동하고 다 인근에서 40분, 50분 거리에 있는 시설들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넘겨주니까 우리 의사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제목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저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은 차후에 꼭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녀와서 보고서가 아니고 이러한 사례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정책에 할 수 있는가를 우리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 리포트를 다 챙겨서 발표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원님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위원 5 더 질의했다가는 혼날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2 위원님께서 저희들 궁금한 점을 다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책이나 영상을 통해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해외 나가서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는 아주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또 벤치마킹한 부분을 순천시에 돌아와서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례적용을 통해서 이 연수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그러면 제가 중간에 잠깐 제 질의도 하나 할까 하는데 우선 여기 2개 나라를 덴마크와 스웨덴을 정한 데에 대해서 조금 뭐가 적히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크게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 RE100과 관련해서 이 나라들을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나 스웨덴이 그런 데서 좀 앞서 있으면 앞서 있다는지, 아니면 중간쯤이면 중간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선 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저는 거대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실생활에서 체험했던 이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숙소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곳을 추천했던 본인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같은 여행을 해도 여행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각도로 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장** 북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 보다 훨씬 앞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두 나라를 고른 이유를 좀 적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장**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4** 위원장님 질문과 비슷한 거긴 한데요. 출장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디가 좀 나왔는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 추천한 곳들이 있었나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주로 프랑스, 독일, 또 일본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북유럽문화권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저는 그곳을 가보고 그분들이 하는 어떤 생활적인, 생활 속에 녹아있는 모든 면들이 다 어찌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감례하면서 조화롭게 문화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실 시기적으로 북유럽이 지금 춥고 또 낮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아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를 12월 회기까지 마감을 하고 12월 말경에 갈까 했는데 그때는 또 너무 활동 시간대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우스갯말로 행정사무감사 다 준비해 놓고 가자 이런 말까지 했던 사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로 그 두 나라를 고르게 됐습니다.

**○위원 4** 그리고 여기 심사기준을 보면 출장자의 적합성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의원들 중에서 10여 명이 이번 해외출장을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필수인원으로 한정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10명 정도가 개인사유 때문에 안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거라면 혹시 상임위가 어디가 제일 가까운가요? 도건위인가요, 아니면 어디가...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도건위입니다.

**○위원 4**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 도건위 위원들이 대다수가 가질 않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제가 아까 개개인별로 우리가 32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돼 있다 그랬죠. 보통 연수를 상임위끼리 많이 갑니다. 그런데 상임위만 가다 보면 연수비용이 올라갑니다. 솔직히, 8명 선에서 가게 되면. 그래서 문경위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건위는 실은 계획이 있는데 향후 더 늦게 아마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우선 두 분이 안 가신다 그러셨고 문경위에서 한 분인가 안 가신다고 해서 인원이 이렇게 잡힌 거지 10분이 다 안 간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도건위는 아마 향후 다시 계획서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4** 심지어는 도건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다 참석을 안 하시네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계획서가 들어와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 머지않아서 다른 또 심의 한 번 더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일정상 저희들이 30일 이내 계획서를 내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저희가 일정상 먼저 심의를 받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제가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이 RE100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여수와 광양에 있는 공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세를 앞으로 물린다 그러면 가장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해산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배후도시인 순천시의회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는 나름대로 정당성이랄까 타당성은 있는 일로 그렇게 이해해서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요? 위원님 해 주시죠.

○위원 5 아까 제가 목적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 일정 부분 해소된 측면도 있고, 또 그래서 북유럽으로 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국가부터 지방정부까지 그리고 마을골목까지, 그래서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실천 또는 어떤 정책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청취,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심의자료가 오게 되면 우리가 경입찰을 일반적으로 요청하시잖아요, 의원님들께서도.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일정 부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주로 담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예산이 6700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령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내용들과 접촉인물들을 좀 제시해 달라고 나라장터에 올리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아마 관련한 계획과 내용들을 제출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일반여행사들도 있고, 공무국외출장을 전담하는 여행사들도 있고, 또 공무국외출장만 별도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목적들을 설정하셨으면 거기에 걸맞은 연수계획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추구하는 공무국외 이게 출장이란 말입니다, 출장. 그러잖아요. 출장의 목적에 맞을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후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실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출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결국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은 또 결국은 계약 심의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꼭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공무국외출장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한번 제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꼭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을 주고 세 군데에다가 쪼갬거든요. 그랬더니 620 몇만 원부터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론 북유럽이라 벌써 여행사에서 대뜸 하는 말이 다른 데 지역보다도 100만 원은 높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서는 저희들이 준 계획을 보고 날짜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425에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동거리도 짧고 말이 2개국이지 유럽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로인 구역권만 돌고 있거든요, 극히 한 일부분. 그래서 그 비용은 적정하겠다 해서 결정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런 게 더 체계적이고 투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 심의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예, 우리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이게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다녀오시는 게 굉장히 정말 필요한 일을 다녀오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앞으로 우리 의회도 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책임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하실 토론할 거 있으면 또 토의를 하셔도 괜찮고요. 없으면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정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 5 의사결정을 바로 하시는 걸로? 내부적 논의를 하지 않고?

○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좀, 어떻습니까?

○위원 5 해야죠.

○위원장 예.

○위원 5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심사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국의출장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9대 의회 열려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니까 기준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의원님들 공무국의출장 가는 것의 우리가 절차상 하나의 과정이라면 저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기준으로 그 공무출장에 관련된 제안을 하신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다음 단계에서도 공무출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설마 이렇게 간략한 서류를 준비해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그 점은 만약에 이게 부실하다고 우리가 생각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알려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매하게 주문할 게 아니라 적어도 뭐, 뭐, 뭐는 들어가야 된단지.

**○위원 5** 위원장님도 이런 회의 많이 참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좀 더 위원회답게 되려면 그건 항상 사후처리 있죠. 차라리 그게 좀 더 권위 있으려고 한다면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고 이 회의를 마치는 게 맞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변합니다, 행위자들. 행위자들을 변하게 할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서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결 심의했다고 하는 건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저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의원 해봤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이 연수가 가지는 부정적 의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중에 본인들이 국외출장을 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건 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조례를 형식화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간략한 연수 심의안건 현장은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순천시의회가. 이결 심의하고 있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서류 보완을 통해서 2차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말씀에서도 11월에 가나 12월에

가나 덴마크 여기 추운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좀 더 서류를 보완해서 의미 있게 정말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연수가 돼야지 이영란 의원 개인 경험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덴마크의 경험이라든지 스웨덴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 16명의 시의원들이 움직인다? 16명의 시의원들이 이 안전에 본인 이름을 올린 것도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여기 일정은 우리 북유럽 여행을 가면 덴마크 여기는 비행기가 거의 여기로 떨어지니까 여기 가서 잠깐 들렀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잠깐 들렀다가 바로 스웨덴으로 건너가는 그런 경로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긴 합니다.

**○위원 2** 저는 이게 우리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류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만나고, 또 누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세부사항 같은 걸 넣어서, 추후에 또 여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위원 5** 왜 무리, 무리일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서류를 보완해서 위원회를 한 번 더 하자 이런 말씀하시고...

**○위원 5** 예, 저는 보완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2** 보완해서 차라리 우리 위원들한테 보완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을 하면 어떨까...

**○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사무국에서 일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결 보완한 다음에 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가지고 추진해도 일정 시간적으로 괜찮은지요?

**○의정팀장** 시간적으로 지금 11월 7일이 출국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위원장** 11월 7일이요?

**○의정팀장** 예,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보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인데 완벽하게 계획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서 이렇게 제출이 돼서 우리가 하게 되면 2차 심의회는 그전에 확정되면 되니까요. 그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나리오상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가결, 부결 외에도 수정가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위원장 아, 수정가결이 있고….

○의정팀장 수정가결을 하게 되시면 그 안을 여기서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어떠한 것을 수정을 해라고 제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위원님들께 서면심의를 하든 2차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예.

○위원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사진행록에 이거 시나리오에는 원안가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가결이 있고, 부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정가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꽤 공감을 하는데 시간상으로 좀 그런 점이 있고….

○위원 5 우리 심의위원회가 왜 시간에 쫓겨야 되냐는 말이죠, 저는.

○위원장 아니, 11월 7일로….

○위원 5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이 위원회는 그동안 공무국외연수의 수많은 외유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생긴 다른 일반 위원회와 다른 거예요. 이런 간략한 서류를….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총알받이가 되는 그런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위원 5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맞지 않죠, 위원장님. 저는 적어도 그런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심의가 계속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심사위원회를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의회가 좋은 게 좋은 거라시겠지만 이런 간략한 서류로 이걸 심의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위원장 위원님, 서로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서로 의견들을….

○위원 5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의견으로 좀 조율을 하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2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좀 더 완벽하게….

○위원 1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면 지금 11월 7일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닌데 수정가결을 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결, 부결을 해 주면 어쩔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각자 그러면 의견을 쪽 돌아가면서 한번 의견개진을 해 보시죠.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위원 3 아, 저요? 본인들이 내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 아니면 나는 못 해 그러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여기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차피 그 안건이 지금 3개 안건이 있다면서요. 가결, 수정가결, 부결 거기에 따라서 수정가결로 하면 어떤 식으로 수정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5 무엇을 수정하자는 거죠?

○위원 3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 5 제가 제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불편함을 끼쳤다면 정말 죄송한 건데….

○위원 2 다른 분들….

○위원 5 저는 제 의견,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위원 2 예.

○위원 5 불편해도 견디는 게 회의예요, 사실은. 회의라고 하는 게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고 감정을 처리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회의입니다. 회의가 항상 평화로우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이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시고 2차 심의를 개최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의결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를 위원님들에게 물어서 의결하는 그것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생각이 그러신데 저는 지금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견개진을 한 번씩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5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어떠신가요?

○위원 4 연수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의정팀장 예, 그분들의 계획이시니까.

○위원 4 계획인 거고 티켓팅이 된 건 아니죠?

○의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그다음에?

○의정팀장 25일부터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 4 이 예산이 지금 안 쓰이면 반납되는 거죠?

○의정팀장 추경에서 전액 삭감….

○위원 4 일단 이 자료가 매우 미흡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심사위원으로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 자체도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총알받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뭔가 방패같이 해야 될 부분은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정가결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를….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완할 수 있는.

○의정팀장 여기서 정해 주시면 언제까지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내라, 계획서를 제출해 주라, 그럼 그 제출된 안으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다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수정가결을 하시면.

○위원 4 저희가 수정안을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그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의정팀장 예.

○위원 4 그렇다면 저는 일단 수정가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수정가결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 4 2차 심의….

○위원장 예, 2차 심의가 되는 겁니다.

○위원 4 예.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어머신가요?

○위원 6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간도 이게 너무 짧고요. 아까 말씀 위원님이 재심을 하려면 지금 남은 게 오늘 20일…. 17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출국하려면? 기간이 너무 일단 짧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좀 빨리 해서 2차 심의를 하더라도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 없으니까 저희보고 빨리 가결해주라는

식으로 제가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시민들, 저도 제 주위에서 이런 의원들 해외출장들 정말 말이 많거든요. 어떤 분은 심지어 가서 제가 기라고 하니까 그냥 부결시켜라 그런 말까지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고 시민들 지탄을 저희가 아마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간을 좀 넉넉히 해서 급하게 잡지 말고 저희가 1번, 2번, 3번을 거쳐서라도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가결하는 걸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저도 이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짧으면 100% 부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은 다음부터는 이러면 통과 안 시키지만 이번에는 수정가결 정도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 6 제 입장은, 그러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1번, 2번을 가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이번 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는 제가 안 여쭙보는 게 더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위원 8 예.

○위원장 그러시겠죠?

○위원 8 예.

○위원 7 예.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얼른 카운트를….

○위원 5 수정가결을 하게 되면 이후에 심의회를 또 연다는 전제인 것인지….

○위원장 아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더라고요.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오면 우리가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것도 심의를 한 번 더 하는 절차….

그것도 정하기 나름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제가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정가결이란 것은 지금 현재 나온 계획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가결하는 건데요.

○위원장 우리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 5 2차 서면심의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수정가결이기 때문에.

○의정팀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뜻이 2차 심의로 가신다고 하면 수정가결이 아닌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2차 심의를 하시는 걸로 정리해서….

○위원장 그러니까 수정가결은 들어온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수정해서 가결한다 이런 의미로 수정가결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수정가결은 이번에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가결로 할지, 아니면 다음에 한번 회의를 더 할지 결정을 그냥 의사표시를 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정하는 걸로 하죠.

○위원 2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종이를 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가결이면 팔호 쳐서 밑에다가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 쓰고, 아니면 부결하고 2가지로 이렇게 안에다 써가지고 제출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손으로 들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표시를 여기 종이에 지금 가결, 부결로만 해야 할 겁니다, 아마 우리 회의에서는.

○위원 3 수정가결도 가결이죠?

○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 2 그런데 수정가결하게 된다 하면 우리가 연수일정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너무 소홀하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 1 그렇죠, 예.

○위원 5 회의를 좀 도우면 가결하더라도 수정요청하는 건 필요합니다. 목적에 대한 문제랄지, 방문지에 대한 기관 방문자랄지를 세부적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것이 위원회에 보고되고 난 이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위원장 일종의 조건부 가결인 셈이죠.

○위원 5 예, 그렇죠. 그게 수정안입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거.

○위원 3 그게 수정가결이죠.

○위원 5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로 한다고 하면 가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가부를 물으시고 그런 다음에 가결한 다음에 가결이 되면 조건부로 의회에다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부를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거수하나요, 아니면

여기다가 기표하나요?

○위원장 자, 우리가 가부를 묻기 전에 먼저 뭐하고 뭘 가지고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단다든지 이게 더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위원 3 수정가결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위원 1 예를 들어서 수정가결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업무내용을 보면 친환경 주택단지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 어떤 전문가와 미팅을 해서 그 미팅한 분하고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벤치마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지역의 전문가 누구를, 예를 들어 아무개이면 아무개 이렇게 딱 써서 그 분을 만나서 미팅을 잡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안을 그쪽 덴마크나 스웨덴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 것은 그냥 갔다가 눈으로만 보고 오겠다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보이니까….

○위원장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데는 다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수정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래서 이걸 수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 5 아닙니다. 먼저 가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원안이기에 때문에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물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정의결이라는 게 없다면가요, 위원장님. 의견을 던지는 거고 보완하거나 말거나의 문제는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연수를 가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은 일단은 결정을 하되 거기에 우리가 추가의견을 붙이는 정도 이런 말씀인가요?

○위원 5 그렇죠.

○위원 3 그런 취지로 저도 들리는데요.

○위원 5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결입니다.

○위원 2 일단 여기에 표시를….

○위원장 아니, 의회 의사결정은 아마 저보다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사무국의 판단은 어떻게습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 1 여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위원 5 그러니까 부결을 하면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외연수 심의 관련된 2차로 또 저희 위원회가 2차로 두 번째로 열리게 될 거고, 가결을 하면 수정가결이든 가결이든지 간에 이 원안대로 의회에서는 국외공무출장을 진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일단 여기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배부된 용지에 작성해서 바로 그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의결정족수에 저도 포함이 돼 있죠?

○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아까 저 포함해서 9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재석위원...

○위원 4 7명만 하는 거죠? 의원님들도 하시나요?

○위원장 의원님도 하십니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명이면 안 되고 7명부터 가결이죠? 6명은 3분의 2에 해당해서 그걸 초과해야 되니까?

○의정팀장 의사결정의 정족수는 됩니다. 의결정족수는 됩니다.

○위원장 2/3 이상입니까, 아니면 초과입니까?

○의정팀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이니까 2/3도 들어가네요. 6명도 괜찮습니까.

○의정팀장 예.

○위원장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분이 참여하셨고 가결이 8표, 부결 1표이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들 주신 것처럼 수정정보완을 해서 그래서 시행하도록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 주신 의견을 뭐 빠트린 게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 3 아까 말씀하셨던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첨부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수명에서부터 처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RE100을 빼도 말이 돼요, 제목이. RE100을 빼도 순천에 맞는 연수명 같은데 굳이 좀 멋지게 보이려고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RE100을, 글썄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RE100이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RE100을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 1 기록을 남겼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좀 해서...

○위원장 다른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서명을 다 아마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산회)

